2023.10.15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거듭남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시편 121:7, 베드로전서 4:12-14

정윤돈 목사님

*** 시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벧전4:12-14**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보장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순종, 불신앙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전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건 헌신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문제와 의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해야 할 작은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미션까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더 소중하게 쓰시기 위해서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 편 7 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 환난이 와도 관계없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들은 민족공동체인 것 같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나라는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학, 무기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대인과 237 나라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다. 결국 하나님은 핍박, 순교 중에도 초대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하도록 지켜주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것이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믿음의 절대망대로 거듭난 베드로는 '불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줄을 믿는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과 부와 행복을 누릴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베드로전서 1 장 1 절에서 2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캠프이다. 베드로가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주셨는데 분명히 숨겨 놓으신 제자가 있을 것이다.'하고 현장으로 간 것이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70 현장이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즉, 튀르키예 지역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다섯 지역에 보낸 이유는 첫째로 로마제국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물 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자신과 같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1. 첫 번째로는 먼저 거듭나기 전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도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일 것이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영접하고 복음을 받으면서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고,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면도 있었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잘못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베드로의 성품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다.

(1) 첫째로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금방 믿었다가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4 장 28 절에서 31 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2)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8 장 10 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3)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다. 마태복음 26 장 33 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잘난 척하는 기분 나쁜 성격의 소유자였다. 마태복음 26 장 35 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4)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마가복음 14 장 69 절에서 72 절을 보겠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의 차이점이다. 베드로는 울며 회개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충만을 체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로마제국과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을 믿는다.

2. 두 번째로는 변화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들 통하여 주신 중요한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 장 9 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으려고, 천국가려고, 거룩해지려고 온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2) 베드로 사도 또한 야고보 사도처럼 완전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 장 15 절에서 16 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거듭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과 오직복음과 완전복음의 차이점을 이해야 한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오직복음으로 결론 낼 때 전도가 된다.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결론내지 않으면 입이 안 떨어진다. 이 결론이 안 나면 전도가 잘 안 된다. 완전복음의 제자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더 크고 넓게 전도 현장을 넓혀갈 수 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복음의 아름다운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3) 베드로 사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 장 18 절에서 19 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율법과 같은 헛된 생활방식)에서 대속함(해방)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네 번째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자주들을 때 우리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 장 23 절을 보겠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영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거듭나게 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것도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실천했을 때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도 거듭났고, 생각과 마음, 삶도 거듭나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5)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 장 9 절을 보겠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① 왕 같은(왕) ② 제사장들이요(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③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선지자)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6)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2 장 16 절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구실, 핑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잘못 남용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예로 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자로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이 중독에 빠지던지 멋대로 살든지 자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목록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먼저 베드로전서 2 장 1 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 장 3 절에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불신자상태를 떠나 보내버려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5 장 2 절에서 3 절은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 장 5 절 말씀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 장 7 절에서 8 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염려는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다. 사탄은 그 염려하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속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절대불가능한 것을 절대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으로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의 망대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상한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를 베드로처럼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실 줄 믿는다. 거듭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2. Vision 비전 망대이다. 우리의 비전은 베드로 사도처럼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드림 망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거듭나기 위하여 24 시간 주님께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 망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면 3.9.3 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실현 망대이다. 강단과 본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조금만 실천해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거듭날 뿐만 아니라 완전복음의 제자들이 되어 237,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거듭난 그 여정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